

‘조국-금태섭 사자성어’ 출제 여수지역 고교 재시험

학교 측,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 ‘5문제’ 대상

정치적 이슈가 된 사안을 빔대어 사자성어로 묻는 시험문제를 출제해 논란을 빚은 여수의 한 고등학교가 해당 과목에 대한 재시험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해당 학교에 따르면 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날 오전 기말고사 한문과목 시험 문제 중 논란이 된 5문항에 대해 재시험을 치렀다.

이 학교 교장은 “성적관리위원회에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 5문제 대신 다른 문제를 출제해 재시험이 진행됐다”며 “시험 시간도 5문항에 맞춰 주어졌고 시험 과정에서 학생의 동요 등 별다른 문제도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이 학교의 한문교사인 A씨

는 지난 3일 2학년 기말고사 시험 문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일 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비판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느꼈을 감정’을 사자성어로 물었다.

교사가 원하는 정답은 ‘배은망덕’이었다. 이 교사는 당시 조국 후보자가 금 의원의 서울대 박사과정 지도교수였고, 금 의원의 쓴 소리에 조 후보 지지자들의 항의가 빚발쳤다는 언론 기사를 지문으로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구무언’이란 사자성어가 정답인 문제의 지문은 장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가수 장윤준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제시하고 장 의원의 처지를 사자성어

로 물었다.

이외에도 ‘국민 10명 중 8명은 국회의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데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기사를 지문으로 제시한 후 여론이 바라보는 국회의원에 대한 시각으로 가장 적절한 사자성어로 ‘무위도식’을 요구하는 문제도 됐다.

이러한 사실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며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사태가 커지자 해당 교사는 자신의 시험문제 출제는 전혀 정치적 의도가 없었고,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었다고 학교와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해명했다.

학교 측도 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로부터 출제 의도에 대해 해명을 들었다.

여수=김도현 기자



‘별세’ 김우중 17조원대 추징금 환수 못하나

미납 1위 87%...본인명의 재산 無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17조원대 추징금 환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김 전 회장이 남긴 상속재산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자다.

10일 법원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등 혐의로 추징금 17조 9253억원을 선고받았지만,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납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추징 대상자가 사망하면 추징금을 집행하기 어려운 건 맞다”며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에 대해선 집행할 수 있어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김 전 회장 추징금이 환수되지 못한 건 본인 명의 재산이 없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추징 대상자가 재산 명의만 빌려주거나 맡겨놓은 게 아닌 이상 가족의 재산이라도 대신 집행할 수 없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 혐의로 징역 8년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추징금 중 3억원만 납부하자 재산 추적에 나섰다. 2013년 5월 대우정보시스템, 베스트리드리미티드 등 차명재산을 찾아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검찰에서 주식 구매를 의뢰받아 베스트리드리미티드의 주식 77만여주를 2012년 9월 923억원에 팔았다.

캠코는 이중 835억원을 추징금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미납세금이 있던 반포세무서에 배분했다. 동시에 김 전 회장에게는 공매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224억원 등 세금이 부과됐다. 김 전 회장은 “차명주식 공매대금을 추징금보다 세금으로 먼저 납부해달라”며 배분액을 바꿔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캠코 손을 들어줬다.

“위안화 급히 필요해” 대학 총장 사칭 메신저 피싱

대학 총장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대전의 한 대학교수는 A 대학의 전 총장에게서 “중국에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2만 위안(한화 339만원 상당)을 송금해주면 10%를 추가해 환전해주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교수는 A대학 전 총장이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해 해당 계좌에 돈을 보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전 총장이 아니고, 카카오톡 메신저 계정을 해킹해 지인이나 가족 행세를 하며 돈을 가로채는 메신저 피싱 일당이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시기 B대학 교직원도 비슷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B대학 현직 총장의 “위안화가 급하게 필요하니 보내 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연락이었다.

수상하다고 느낀 교직원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확인한 결과 사기로 판단해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16개 대학에 메신저 피싱에 주의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카카오톡 상대 계정을 추적 중이다.

엎드려 자는 여학생 깨운 교사 성추행?

충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D내 A교사의 B교사는 최근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여학생의 어깨와 팔을 치면서 깨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학생은 당시 교사의 행동을 정식으로 문제 삼았다. 해당 교사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교사의 지도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것은 맞지만 정확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친 폭행해 집유로 풀려난 30대 흥기 휘둘러

자신을 안 만나준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흥기를 휘둘러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여성은 어깨가 다쳐 인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지난해 B씨를 때려 구속됐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된 뒤 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39)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2일 오후 8시45분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의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 B씨(44)를 흥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탐문 수사 끝에 9일 인천시 서구 검암동의 한 빌라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치소 수감당시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났고, 출소 후에도 자신을 만나지 않아 살해하려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바닥 고인물 닦다가...” 헬스클럽서 직원 감전

헬스클럽에서 20대 남성 직원이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인천 공단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32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헬스클럽에서 직원 A씨(28)가 감전됐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A씨는 사우나실에서 새어 나와 헬스장 바닥에 고인 물을 닦던 중 감전돼 호흡곤란 등을 호소했다.

또 A씨가 감전된 뒤 스파크가 일면서 사무실에 불이 붙었다.

A씨 인근에 있던 회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A씨를 병원으로 옮기고 신고접수 9분만에 화재를 진화했다.



대입 집중 10월 서울 노원구 광운대학교에서 열린 2020 대입 정시전형 대비 학부모 대상 진학설명회에서 수험생 학부모들이 입시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물질’ 검출 광주 효천지구 아파트 수돗물 먹는 물 ‘적합’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남구 효천지구 아파트 등에서 수돗물 이물질로 인해 샤워기 필터가 갈색으로 변색되었다는 민원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다고 10일 밝혔다.

먹는 물 수질기준은 일반 성인(체중 60kg)이 수질검사 항목의 물질을 함유된 물을 평생 매일 2l

섭취하는 경우, 건강상 위해가 나타나지 않는 안전한 수준으로 결정된 값을 의미한다.

시 상수도 수질연구소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정수장 정수, 배수지, 소화전 등 급수과정별 7건, 민원발생 아파트 저수조 수도꼭지 등 20건 등 총 27건에 대해 샘플링을 실시했다.

수질검사에서는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샤워기 필터 착색 원인으로 의심되는 금속 이온류 5종에 대한 검사도 병행한 결과, 아연, 구리 등이 극미량 검출됐다.

연구소 측은 인체에 무해하나 극미량의 망간이 염소와 반응하면 산화됨에 따라 여과 필터가 변색된 것으로 진단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